

# [보도자료]

## “내가 김용균입니다”

12월 18일(화) 13:00 세종문화회관 계단 비정규직 100명 기자회견  
고인이 남긴 컵라면 · 손피켓 들고 대통령과 대화 · 투쟁계획 발표  
12월 21일(금) 15:00 서울노동청→종로→청와대 행진 후 노숙농성

---

• 발신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 민주노총
• 수신	귀 언론사
• 일시/장소	2018년 12월 18일(화) 낮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문의	김수억 010-9792-4788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한대식 010-4142-3122 (공공운수노조) 김혜진 010-4538-005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1. 민주언론 수호와 공정보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님이 12월 11일 새벽 3시 20분 석탄을 이송하는 기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태안화력발전소 원청의 설비와 기계와 원료로 원청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했기 때문에 파견노동자였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입사한 날로부터 정규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불법파견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규직 전환은커녕 불법은 은폐했습니다.
3. 스물 넷 청년이 남긴 유품은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 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찍은 사진과 컵라면 3개(진라면 육개장 열라면)와 홈런볼 과자였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불의한 세상, 불공정한 사회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을 없애지 않고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습니다. 차별과 죽음의 이 불평등한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4.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비정규직 100명이 작업복을 입고 고인이 남긴 컵라면과 손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12월 21일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촛불 행진 계획 등 투쟁계획을 발표합니다. 비정규직 삶을 바꾸고 싶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했던 고 김용균님의 유지를 받들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 민주노총

## <첨부자료 1> 기자회견 순서

# “내가 김용균입니다”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시간 : 2018년 12월 18일 오후 1시
- 주관 :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 참석 : <문재인대통령, 만남시다> 비정규직 노동자대표 100인

○ 순서 (사회 : 아사히글라스지회 차현호 지회장)

### 1. 내가 김용균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 죽음과 해고에 처해있는 비정규직
- 노조할 권리조차 없는 비정규직

- 1) 태안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 2) 가스공사 비정규직
- 3) KTX 비정규직 승무원 김승현
- 4) 김동성 조선소 하청 전기공
- 5)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 김선영
- 6) 현대제철 비정규직
- 7) 맥도널드 비정규직

### 2. 21일 투쟁계획 발표

### 3. 기자회견문 낭독

##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님의 유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직접 만납시다!

비정규직 100인의 대표단은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1일 대규모 촛불행진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알려 나갈 것입니다.

IMF 이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심화되어온 양극화는 우리사회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비정규직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능이나 관심과는 상관없이 안정적 일자리를 찾아 소중한 청춘을 고시촌 쪽방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경쟁 속에서 일에 대한 애정과 적성은 사라져 버렸고, 직장에서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성과 권리가 수많은 갑질에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양극화의 원인인 소득격차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취임 후 바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약속했었습니다. 참으로 환영할 만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촛불로 바로 세운 줄 알았던 민주주의와 정의는 재벌의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건설’ 이라던 제1호 정책은 정권 출범 1년 6개월이 지나자 방향조차 잃어버리고 역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지난 11월 12일부터 4박 5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격어 왔던 차별과 위협을 고발하며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청와대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총체적 해결을 위한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청과 법원에서는 불법과견과 노조파괴 현행범인 재벌들은 구속하지 않고, 오히려 땀의 대가와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한 노동자들에게는 과도한 형벌을 내렸던 사법농단에 항의했습니다. 국회에서는 파견법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인 되어버린 노조법 제2조, 노동자를 기업별로 분열시키고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창구단일화 등 사회악이 되어버린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청와대로 향하여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을 촉구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혹한 고문이 되었습니다. 희망고문은 희망이 아니라 그저 고문입니다. 자회사 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착화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우려 속에서 평가했습니다. 노동자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부패와 무능으로 찌든 적폐세력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가장 심각하게 위협이 되는 것은 실업율과 경기침체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급하다고 재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진행하면 당장 몇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경제는 공정성을 잃고 지속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인 것입니다. 당장의 투자를 구걸하기 위해 재벌적폐 청산을 뒤로하면 경제는 더욱 악순환에 빠질 것입니다.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원칙이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11월 3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새벽, 24살 꽃다운 청년 김용균님이 스러졌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기에 사회적 살인이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늦어진 때문에 결국은 막을 수 없는 과거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화력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건 석탄이 아니라 노동자의 목숨’ 이라는 어느 시인의 절규처럼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연료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비정규직 당사자와의 대화를 요구하던 청년의 죽음 앞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비정규직들은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맨홀뚜껑 밑에서, 조선소 도크 위에서, 편의점 계산대에서, 건설현장 자재 틈에서, 제철소 고로 앞에서, 배달 오토바이에서 삶과 죽음을 넘나듭니다. 언제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동료의 유품을 정리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오늘도 죽지 않아 다행”이라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까. 비정규직만 죽어나가는 세상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기에 내세웠던 ‘사람이 먼저다!’ 라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무엇보다 먼저라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자본이 먼저입니다. 우리 사회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경쟁력과 효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경쟁과 효율 추구는 우리 사회를 비정규직의 생명을 연료로 태워 움직이는 괴물로 만들어 왔습니다. 19살 구의역 김군과 24살 태안화력발전소 김군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효율과 경쟁은 사람을 쥐어짜기 위한 경쟁이었고 사람을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한 효율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자본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가장 불안정한 권리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고 김용균 님의 유언이 되어버린 대통령과 비정규직 100인의 대화는 이제 살아남은 자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업무에 내몰리는 내가 김용균입니다. 내일도 그 위험한 일터 앞으로 발을 옮겨야 하는 내가 김용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김용균”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합니다.

모든 노동자 여러분, 함께 면담을 요구하고 함께 행진합시다.

어떤 직업이라도 좋습니다. 직종을 떠나 누구나 오십시오. 기업의 크기도 상관없습니다. 일하는 시간의 길고 짧음이나,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도 이 행진의 주인공입니다. 비정규직의 양산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수준을 깎아먹어 왔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릴수록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신분이 되어버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은 양쪽의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없어져야 합니다.

시민들도 함께 걸읍시다.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촛불행진’에 동참해 주십시오. 내가 바로 김용균이 되어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촛불의 물결을 만듭시다.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5시 서울 을지로 고용노동청에서, 명동에서, 종로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2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는 고 김용균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4차 촛불추모제가 열립니다. 이날은 우리 모두 상여를 함께 맏시다. 함께 촛불을 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걸음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직접고용 실행하라!**

**내가 바로 김용균이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원칙 쟁취하자!**

2018. 12. 18.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첨부자료 3> 비정규직 대표 100인 명단

## 문재인대통령과 대화를 원하는 비정규직 100인 명단

(9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권리를 위해 함께하는 비정규·인권 활동가 6명)

<가나다순>

1. 강동인 현대위아 창원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 광경준 화성시 소각장
3. 구슬아 대학원생 조교
4. 권영국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변호사
5. 기선 인권활동가
6. 김경희 방과후강사 특수고용노동자
7. 김광중 예술강사
8. 김기완 마트노동자
9. 김동성 조선소 사내하청
10. 김두영 방송 드라마 스태프
11. 김생수 광고 테크노밸리
12. 김선영 자동차 판매노동자
13. 김성련 보라매병원 환경미화
14.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15. 김영곤 대학 비정규강사
16. 김영민 수출입은행 시설관리
17. 김영태 퀵서비스 특수고용노동자
18. 김영희 춘천환경 청소노동자
19. 김용철 키스트 특수경비
20. 김정웅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1. 김정한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
22. 김주환 대리운전 노동자
23. 김진 예술강사
24. 김태일 대한항공 비행기청소
25. 김현준 한국마사회 경비
26. 김혜진 비정규활동가
27. 김화민 화성시 학교상담사
28. 나승안 철도매점 특수고용노동자
29. 남용진 산업은행 승강기
30. 명숙 인권활동가

31. 문대균 국립오페라합창단 성악가
32. 문석호 구례자연드림파크
33. 문혜진 아시아나항공 지상여객서비스
34. 민석준 연극치료사
35. 박구용 대리운전 노동자
36. 박대성 인천공항 보안검색
37. 박순향 서산톨게이트 수납원
38. 박순화 카이스트 청소
39. 박유종 현대모비스 울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40. 박정식 우체국시설관리단 경비
41. 박정훈 라이더
42. 박혜성 기간제교사
43. 박희주 국립국악원 청소노동자
44. 서광수 현대위아 평택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45. 서재천 중소기업진흥공사파트너스 비정규직
46. 서정남 현대모비스 광주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47. 소영호 건설일용 노동자
48. 손창식 디지털과학기술원 연구원
49. 송경동 시인
50. 신재탁 KT상용직 선로배선
51. 신정웅 맥도날드 크루
52. 심인호 동희오토 사내하청
53. 안명자 학교비정규직 특수교육지도사
54. 안명희 출판노동자
55. 안병호 영화산업 촬영스텝
56. 안재연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7. 양태인 현대모비스 평택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8. 양홍식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재
59. 오세중 보험설계사
60. 오수영 학습지교사
61. 원우석 서울시공무직 하수담당
62. 유아 재택집배원
63. 유흥희 기륭전자
64. 윤성규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 노동자
65. 윤지선 인권활동가
66. 윤호상 현대위아 안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67. 이경자 연세대학교 환경미화
68. 이동민 무용인

69. 이병훈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 노동자
70. 이선인 비정규직 노동자
71. 이성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72. 이연순 서울대병원 환경미화
73. 이영철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
74. 이완규 한국지엠 군산 비정규직 노동자
75. 이주용 한국잡월드 군체험강사
76. 이종원 동서울우편집중국 우정실무원
77. 이진욱 학교 방과후 강사
78. 이태성 발전소 운영정비
79. 임도근 로컬크린환경 재활용생활폐기물 수집운반
80. 장성기 동우공영 시설관리
81. 전문희 비정규직 코레일 승무원
82. 정범채 인터넷설치 SK수리기사
83. 정용식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지회
84. 정인택 비정규직 노동자
85. 정준현 위아 광주공장 하청 노동자
86. 제유곤 인터넷설치 LG수리기사
87. 조현철 예수회 신부
88. 진환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89. 차현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90. 최성근 케이블방송 설치 수리기사
91. 최진영 장애인노동자
92. 태운호 쌍용양회 비정규직
93. 함형길 현대모비스 울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94. 현린 사진작가
95. 홍승완 현대제철 당진 비정규직 노동자
96.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시설관리
97. 홍철희 연극인
98. 황건주 케이블방송 설치 수리기사
99. 황미란 김천시청 통합관제센터
100. 황호인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 노동자